

대마(Hemp) (1)

대마도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BC 1만년에 이미 이집트에서는 마가 재배되고 있었으며, 마직물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마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대마는 원래 식용, 약용, 섬유용, 제지용 등의 소재로 활용되던 식물이다. 대마의 씨는 기름을 짜서 식용이나 연료용 또는 향신료 등으로 쓰였고, 잎이나 암꽃 이삭을 건조 또는 수지 상태로 하여 가루를 만들면 마리화나(Marihuana)란 마약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대마관리법(1976.4.)으로 재배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섬유용으로서의 효용에 대하여서만 기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후한서의 동이전(東夷傳)에 이미 삼한시대부터 저마와 함께 대마 섬유가 재배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본래 마섬유는 약 20가지 종류가 있으며, 대표적인 것만도 많다. 영어에는 우리가 말하는 포괄적인 '마'라는 용어가 없이 linen(아마), ramie(저마= 모시), hemp(대마), jute(황마) 등 종목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리넨과 모시가 대표적인 의류용 소재로 쓰이고, 반면 대마는 밧줄(rope)이나 마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도 의류용 소재로 사용되었었다.

옛날 "마의 태자"도 대마로 된 옷을 입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면화가 들어오기 이전의 서민들의 여름용 의류소재로 널리 사용되었었다. 또한 우리에게 오래 전부터 장제용(葬祭用) 소재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재다. 또한 예전에 황포 돛대라고 하던 배의 황포가 바로 이 대마포였었다.

대마는 학명을 'Cannabis' 라 하고, 원산지는 중앙아시아로 알려져 있으며, 열대지방과 온대지방 즉, 우리나라를 위시한 중국, 러시아, 이탈리아, 루마니아 등지에서 섬유 식물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일년초 식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삼'이라고 하여 경상북도 안동이나 전라

남도 보성에서 한정된 수량이 재배되고 있다.

대마는 일년생 초목이기 때문에 3-4월에 파종하면, 8월에는 3m 정도(열대지방에서는 6m)로 자란다. 이 무렵이 되면 밑 부분에서부터 베어내서 줄기에서 인피를 벗겨낸다. 이것을 정제(정마)하여 놓은 섬유가 대마가 되는데, 대마도 통상 인피섬유라고 한다. 인피(韌皮)란 질길 '인'자와 가죽 '피'자로 만든 단어로서 질긴 섬유란 뜻이 된다.

대마는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는 식물로서 성장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이 식물이 자랄 때 많은 탄산가스를 소비하며, 섬유질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구 환경 보호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작용을 함으로 실제 에콜로지 식물로서 각국에서 연구와 실용화가 진행되고 있다.

대마섬유는 굵기가 16-50 μ 이고, 길이가 5-55mm 정도로 굵은 섬유다.

이 대마의 마약성에서 유래된 일상용어로서 마취, 마비란 용어가 있으며, 실을 만들 때 비벼주는 연유에서 마찰이란 용어가 있는가 하면 연마란 글자도 유래된다. ♣ (공석봉)



대마 식물



대마의 잎